제4강 이용악의 「그리움」

(1~3교시)

이용악 (1914~1971)

그리움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1. 이용악의 개인사

1914년 함북 경성 출생. 일본 조오지(上智) 대학 졸업. 매우 궁핍한 생활 속에서도 시와 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작품 활동을 계속함. 『분수령』, 『낡은 집』, 『오랑캐꽃』과 같은, 내는 시집마다 당대 문단의 비상한 주목을 받았다. 좌익계열의 문인으로 한국전쟁 기간 중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월북하였다. 그런 사상 활동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시는 매우 서정적이며 향토적이었다.

2. 해설 및 감상의 포인트 : 정서

* 정서 … <정서>라는 낱말은 <감정>이란 낱말과 실상 큰 차이 없이 사용되지만, 문학에 있어서 정서의 문제는 두 방면으로 구분하여 논의하는 것이 좋다. 첫째는 문학이 독자에게 어떤 정서적 효과를 미치는가 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작가가 어떠한 정서를 작품에서 나타내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상섭,『문학비평용어사전』에서)

3. 이용악과 '그리움'

① 눈, 그리고 북방정서 : 그리움의 북방적 얼굴
 * 참고 : 이문구의 소설 『관촌수필』 가운데 「공산토월」
② 인격화된 고향의 다른 이름 : 잉크병이 얼어드는 추위, 가난한 동네의 막살이
③ 말 한마디가 주는 울림 : 4연에 있는 시의 눈(眼)인 '어쩌자고'와 '차마'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해설자는 이를 '뻑뻑해진다'라는 자기만의 용어로 다시 외연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4. 참고문헌

김용직,「현실의식과 서정성-이용악론」,『한국현대시사』, 한국문연, 1997
윤영천,「민족시의 전진과 좌절-이요악론」,『한국근대리얼리즘작가연구』, 문학과지성사, 1988.
류순태,「이용악 시 연구」, 서울대대학원, 1994.

5. 참고작

달 있는 제사

달빛 밟고 머나먼 길 오시리
두 손 합쳐 세 번 절하면 돌아오시리
어머닌 우시어
밤내 우시어
하아얀 박꽃 속에 이슬이 두어 방울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